

47. 슬픔의 예언자

신앙고백

찬 송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예레미야 20장 7~18절

말씀묵상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밋세 통치 말기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친한 벗까지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선포해야 하는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해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7~10).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도 이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연약해져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겨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11~13).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나날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곤궁할 때,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3.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14~18).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맺는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말씀적용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시무장로 복직(김상우 장로님)

지난 17일 치리당회를 통해 김상우 장로님의 시무장로 복직이 허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리당회 결의사항 : 금번 치리당회는 김상우씨가 해임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시무장로직의 복직을 청원하였고 이행각서를 이행하였기에 김상우씨의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시무장로직의 복직을 허락하다.

2.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추수감사주일 목장연합예배 및 목장별 모임 안내

식사 후 지정된 목장별 장소에 모여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교회절기안내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주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축복하는 절기입니다.

5. 성탄절 세례교육

수요일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6. 사랑의 모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 : 758,000원)

7. 경기노회 장로회/남신도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

26일(토) 오전 11시 둔전교회 중예배실

♣ 교우소식

[부군상] - 지난 11월 14일 한영운 집사님 부군 정장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현 물] - 최진수 집사님, 최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일 공동식사 제공하셨습니다.

[현 물] - 군산 서수제일교회(이창구 목사님) 추수감사주일 강단 과일(대봉) 제공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 목 사 : 김반석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시무장로 : 김상우 박심원 임완민
지 휘 자 : 박경미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고은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DOONJEON 190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43장 다같이

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106. 감사절(2)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44장	다같이

기도 김효영원로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7장 21~25절 (신약 249면) 인도자

찬양 만물을 지으신 주 찬양해 임마누엘찬양대

말씀 『감사의 근본』 조항철 목사

금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1

월 봉사위원

		11월 20일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예배 기도	1부 2부 3부	김효영	임완민	최진수	김상우
헌금위원		1부 : 한춘자		2부 : 임신자	

특송 여정 베이스 김성호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폐회송 591장 다같이

※축도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김반석 목사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율	김반석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율

【로마서 7장 21~25절】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예 배 안 내 >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0: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0: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중예배실
새벽예배		오전 5:30	중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선교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추수감사주일 목장연합예배 좌석 안내

< 3층 >

1열(오르간 쪽) : 1목장~6목장

2열 : 7목장~11목장, 13목장

3열 : 14목장, 15목장, 17목장, 19목장, 20목장

4열(피아노 쪽) : 21목장~23목장

< 4층 >

1열 : 18목장 3열 : 12목장

4열(방송실 쪽) : 16목장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남효정 박심원·윤관순 박춘화 안홍욱 이인임 이정훈 임수정 임영희 정귀자 정재현 정재현 주영순 홍선옥 홍지현 홍춘근·한춘자

◆ 감사헌금

김동수 김동환·이경미 김부철 김재정 김종순 남영옥 남효정 명민주·주상연 박상민A 손미자 유병주·조명숙 유병희 이종숙 정귀자 정영숙 최미연·백승환 추사순 무명3

◆ 선교헌금

백영훈

◆ 건축헌금

안홍욱 이상설·박옥년 임완민·곽삼화 한춘우

◆ 기관헌금

초등부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기관헌금	건축헌금
597,000	611,000	2,788,000	100,000	23,000	1,250,000

* 온라인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표기됩니다.